

方藥合編에 對한 小考

申 晶 熙
(大邱 百草堂 韓藥房)

韓方家에서 많이 參考하는 醫書라면 亦是 “方藥合編”이 아닐까 한다.

이 方藥合編에서 活用되고 있는 藥은 몇 種이나 되며, 또 繁用되는 藥材는 무엇인가?

神農本草經의 上·中·下品藥과 方藥合編의 上·中·下統 處方間에는 어떤 關係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平素의 疑問이었다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統計的處理를 通하여 究明해 보고자 하여 淺學의 몸으로 試圖하여 보았으나 이는 오직 日常生活 속에서 韓藥人에게 조금이라도 參考가 되었으면 함과 先輩 諸賢의 가르침을 받을 機會로 삼고자 할뿐이다.

方藥合編은 惠庵 黃道淵의 醫方活투와 損益本草를 合하여 編成한 것으로서 1885年(高宗 22年) 惠庵의 子(黃必秀)가 惠庵이 卒한 뒤에 出刊한 것으로서 다른 韓醫藥書와는 特異하게 上·中·下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神農本草經은 古代 聖德의 帝王인 神農氏(炎帝라고도 함)의 著書로 牛首人身으로 嘗百草하여 365種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 原書는 傳해지지 않는다. 그 후 南北朝時代(西紀 500年頃) 陶弘景의 著 神農本草經集註가 傳해오는 바 其書에는 上·中·下品藥 三種으로 分類되어 있다.

그렇다면 方藥合編에서 上·中·下編으로 分類한 意圖는 무엇이며 神農本草經과는 어떤 關係가 있는 것일까?

一生 二法이 아닌 一生 三法으로 生覺할 때, 太極이 三極(三才)으로 나누어지면서 처음에 天이 生하고 다음에 地가 生하였으며 그 後 森羅萬象이 生하였으니 즉 人이 生한 것이라 하고, 이 天地人을 體로 했을 때, 用으로는 天이 있고, 人이 있으며 그 나중에 地가 있으니, 이 天天地 三種中 第一 中心이 되는 것이 人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方藥合編을 關聯시켜보면 上統藥은 天의 藥으로 補益劑이며, 中經藥은 人의 藥으로서 和解劑이고, 下經藥은 地의 藥으로 攻伐劑로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根源을 어디에 두고 編輯한 것인가를 生覺할 때 神農本草經이라고 말할 수 있다.

神農本草經의 分類를 보면

1) 上品藥 120種 爲君

主養命以應天 無毒 多服久服不傷人 欲輕身益氣 不老 延年者 本上經.

2) 中品藥 120種 爲臣子

主養性以應人 無毒 有毒 斟酌其宜 欲過病補虛者 本中經

3) 下品藥 125種 爲佐使主治病以應地 多毒 不可久服 欲除寒熱邪氣 破 積聚疾者本下經이라고 하였던 바, 上品藥을 爲君으로 삼고 無毒하며 壽命을 延長시키며 長服해도 人體에 副作用이 없고, 또한 病에 대한 抵抗力을 높인다 하였고,

中品藥을 臣으로 定하여 養生을 重點으로 하고 病을 防止하며 服用者에 따라서는 補도 될 수 있으며, 長服도 可하나 그와 反對도 될 수 있고,

下品藥은 佐使로 定하여 治病이 中心이니 長服하면 害가 되는 바 病이 完治되면 服用을 中止해야 한다고 證明하고 있다.

위 證明과 別表를 根據로 하여 推論해 보면,

1) 方藥合編의 總 處方件數는 467 件이며, 이를 分類하면 上統 123 件 中統 181 件 下統 163 件이 된다. 方藥合編에 쓰인 韓藥材는 모두 305 種이며 그중 神農本草經에 登載되어 있는 韓藥材는 181 種인 바 殘餘 124 種은 宗代 西紀 900 年 頃부터 藥用해 온 것으로 推測된다.

가. 神農本草經에 登載된 것으로 方藥合編에도 登載되어 있는 181種을 上 中 下品으로 分類 (表1)과 같다.

	83		
80	}	69	
60			
40			
20			29
種類 品名	上 品	中 品	下 品

<表1>

方藥合編에 쓰인 藥材는 上中品이 181 種의 79.6% 인 152種이고 下品藥은 29 種인 20.4%에 지나지 않으니 方藥合編의 藥은 養命 乃至 養生이 爲主이지 治病이 爲主가 아님을

□ 학 술

알 수 있다.

나. 神農本草經의 上·中·下品藥中 方藥合編에 登載된 181 種을 上 中·下編統으로 使用된 回數를 整理하면 (表2)와 같다

神農本草 方藥合編	上 品	中 品	下 品	備 考
上 統	59	39	7	× 下品藥名 枯梗, 附子, 川烏, 穿山甲, 半夏, 川芎, 郁李仁
中 統	61	49	16	
下 統	67	52	22	

〈表2〉

(表2)로 미루어 보면 陰陽이 언제나 相對的이듯이, 處方中에 下品藥이 많으면 下統藥으로서 攻伐劑이며, 處方中에 下品藥이 적거나 없으면 上統藥 乃至 中統藥이 되어 主養命 或 養生이 된다. 方藥合編의 上中下統 全部를 보면 先補後治病 한다는 原則이 自明해짐을 알 수가 있다.

2) 方藥合編의 上中下統 總處方을 通하여 60 回以上 쓰인 藥材를 頻度順으로 적으면, 甘草(292 回), 生干(171), 當歸(166), 陳皮(139), 人蔘(129), 白朮(121), 川芎(82), 赤芍(72), 黃芩(64), 大棗(78), 熟地黃(62)로서 14 種이 된다.

다시 위의 14 種을 使用하여 處方을 構成해 보면,

① 八物湯 ② 四君子湯 ③ 六君子湯 ④ 四物湯 ⑤ 貞元飲 ⑥ 三白湯 ⑦ 佛手散 ⑧ 芎歸湯 ⑨ 金匱當歸散 ⑩ 二陳湯 등이 되며,

위 處方의 主治를 보면,

① 處方은 氣血兩虛 ② 氣虛弱及氣短氣小 ③ 氣虛痰盛者 ④ 通治血病 ⑤ 氣短 以喘呼促急 ⑥ 治濕泄 ⑦ 臨月服之 縮胎易產 ⑧ 治產後諸疾及血暈 ⑨ 孕婦常服養血清熱 ⑩ 痰飲으로서, ①~ ⑨까지의 處方은 氣와 血을 補한 後에 治病하도록 된 것이며, ⑩의 處方만은 例外로 痰飲에 쓰게 되어 있다.

다시 위 14 種의 藥을 氣味로 분류하면

(氣) 寒性藥 2, 平性藥 1, 溫性藥 10으로서 凉性 熱性藥이 없으니 處方構成은 平性이 아닌 溫性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味) 辛味 4, 苦味 3, 甘味 8, 酸味 1로서 (二重味が 있으니 16 味임) 함味が 없으니 五行(木火土金水) 으로 보면 甘味藥이 8로서 제일 많은 바, 甘은 脾胃土로 歸經하게 되고, 土를 中心해서 補하며 溫해 주는 藥이라고 볼 수 있다

3) 人삼이 方藥合編에 쓰인 頻度を 살펴보면 上統處方에서는 甘草다음인 69회로서 2位이고, 中統에서는 甘草 生干 天 皮 當歸에 이은 5位로 나타났고, 下統에서는 40位로 前 胡 白 朮 菝 朮 三 紫 蘇 葉 連 翹 杏 仁과 같이 頻度 8회로서 治病에는 人蓼이 별로 쓰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藥房에 甘草란 옛 俗談을 立證이나 하듯 方藥合編 上中下統 머리에서나 끝고루 쓰였고, 總體的으로도 斷然 1位를 占有하였다.

5) 方藥合編에 쓰인 毒草類 11 種은 神農本草經에 모두 下品藥으로 登載되어 있고, 이들이 方藥合編에 쓰인 樣態를 보면 上統에 附子·半夏, 中統에 附子 白附子 南星 半夏, 下統에는 11 種 全部가 쓰였으니 本草學의 有毒 無毒 表示기 과연 重要함을 알 수 있다.

6) 方藥合編의 上中下統에 收載된 處方數는 467 件으로 되고, 使用된 藥材의 總 頻度數는 平均 8.73種으로 이는 生干, 大 棗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古方의 處方當 平均 7種 以下보다 約 2種이 더 많은 數字로서 後世方임을 알 수 있다. 또 處方中 藥種類가 第一 많은 것은 牛黃清心元으로서 30種, 第一 적은 것은 單鹿茸湯 外 7件으로서 모두 1種으로 構成된 것도 있다.

7) 方藥合編의 處方 467件에 使用된 韓藥種類는 305種으로 이들 중 植物性藥이 241種 動物性藥이 34種, 鑛物性藥이 22種으로서 植物性對動鑛物性을 比率로 보면 植物性藥이 77.5%를 차지하고 있어서 古來로 韓藥은 草根木皮라 한 말을 實證해 주고 있다.

以上과 같이 여러 側面에서 考察해 본 결과 方藥合編을 構成하고 있는 諸處方은 攻伐爲主가 아닌 補益 乃至 和解劑로서 中을 中心한 藥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는 東洋思想의 源流인 中庸의 第一章에서 말한 “致中知면 天地 位焉하며 萬物育焉하나니라” 즉 中과 和를 이루면 天과 地가 제자리를 잡고 萬物이 자란다고 말한 것과, 위에서 氣味로 본 方藥合編의 中央土 즉 脾胃를 中心한 藥은 一脈相通한다. 그 源流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115 년부터 1368 年사이의 約 250年 동안 金元四大醫家中의 一人으로 補土를 主張한 李東垣의 說에서 찾을 수가 있다. 즉 脾胃를 補하므로써 모든 病을 治療하고 豫防하자는 脾胃論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別表는 方藥合編에 나타난 頻度數를 方藥合編의 分類法(山草類, 濕草類) 등으로 分類하였다.

□ 학 술

① 別表의 品級은 神農本草經에서의 上中下品을 뜻한 것이며, 無字는 神農本草經에 登載되어 있지 않은 藥입(130種)

② 神農本草經에는 朮 茯苓 芍藥 地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白朮 蒼朮 白芍 赤芍 先地 乾地 熟地黃으로 方藥合編의 例에 따라 分類하였다

③ 別表 上段의 上中下는 方藥合編의 上中下統을 表示한 것임

의문으로 남는 것은 甘純良和之材는 上品藥, 微苦劣 微和純之材는 中品藥, 苦劣之材는 上品藥으로 알고 있으나 神農本草經에 黃連이 上品, 白芷여가 上品, 桔梗이 下品, 毒藥인 石雄黃이 中品, 芒硝가 上品 等으로 登載된 것이 理解難인 바 先輩諸賢의 參考를 바란다.

(參考文獻)

- 1) 方藥合編 (黃道淵)
- 2) 本草綱目 (李時珍)
- 3) 東洋醫學大辭典 (謝觀)
- 4) 中庸 (子思)
- 5) 漢方臨床治療學 (裒元植)
- 6) 藥物學 (李相 漸)

